

조선 간찰 한문의 ‘爲+동/형’류 문미 보조술어 연구*

임병권**

◁ 목 차 ▷

- I. 서론
 - II. ‘爲+동/형’의 기능: 중심술어와 보조술어
 - 1. 보조술어로 쓰이는 ‘爲+동/형’류 동사의 사용례
 - 2. 중심술어로 쓰이는 ‘爲+동/형’류 동사의 사용례
 - III. 결론
-

I. 서론

조선 간찰(簡札) 한문에서 보이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행위사태 뒤에 첨가되어 문장을 끝맺는 다양한 형태의 술어인데,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1) 答檜浦第四書, 還投此便爲望。(農巖眞蹟) 회포에게 회답한 네 번째 편지를 이 인편에 돌려주기를 바라네.
- (2) 靈通碑以索縛住亦可印出云。幸望以此分付更爲印惠如何? (《海東歷代名家筆譜》孟萬澤) 영통비는 새끼로 동여 묶으면 탁본을 찍어 낼 수 있다고 하네. 부탁하는데, 이렇게 분부하여 다시 한번 찍어내 주시면 좋겠네/어떤가.
- (3) 所引南軒說, 便是朱子仁說中知覺是智之用一般意思。朱子說足矣, 何待南軒爲重?(農巖眞蹟)
 - ㄱ. 주자의 설명으로도 충분한데 어찌 남헌이 거듭 설명해줄을 기다리겠는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3034627).

** 한국교통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

- 가. (송기채 역)
 나. 주자의 설로 충분한데 어찌 남헌의 설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겠는가?
 (장유승 역)
 다. 주자의 설로 충분하지, 어찌 남헌의 설을 인용할 필요가 있겠는가/인용
 함이 중요하겠는가? (임병권 역안)

예문 (3)은 ‘爲+동·형’ 표현과 관련한 구조분석상의 이견에 의해 해석·번역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처럼 조선한문의 문장 말미에 쓰여 화자의 사태에 관한 태도 등을 표현하는 술어성분을 보조술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 그 입증과 설명을 시도한다.

- (4) 조선한문에 두드러지게 발달한 문미 보조술어의 용법은 한국어의 문미에 양태·어기 등의 보조용언을 두는 특성이 중국어 문법과 결합한 결과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 보조술어(보조용언) 구문의 구조와 대응하는 조선한문의 〈중심술어+爲+동/형〉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爲+동/형’은 동사 爲 뒤에 다른 동사(조동사 포함)나 형용사가 이어져 긴밀하게 결합한 어구를 말한다.

중국어 ‘爲’의 주된 용법은 대체로 동사 ‘作: 하다, 以爲: 여기다, 當做·成爲: 되다, 是: 이다’와 介詞 ‘替·因爲: 위하여·때문에’로 정리되는데, 각 용법은 한국어의 기본 어휘들과 잘 대응되어 한국어와 중국어의 친연성(親緣性)을 보이는 중요한 예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한국어의 일부 동사·형용사는 ‘어간(語幹)+하다’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5, 6)과 같다.

- (5) 동사: 연구(研究)하다, 설명(說明)하다, 밥하다, 좋아하다
 (6) 형용사: 심오(深奧)하다, 분명(分明)하다, 깨끗하다, 말끔하다

중국어의 동사나 형용사 뒤에 ‘하다(爲)’를 덧붙여 한국어 동사·형용사를 만든 것을 볼 수 있다. 이 ‘한자어(漢字語)+하다’ 형식의 단어 중 동사(7)는 ‘목적어+동사’의 구조로 바뀌 말해도 된다. 그리고 조선의 한문 간찰에서는 (8)과 같은 단어들 이 비교적 자주 보이는데, 중국어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표현이다.

- (7) 한국어 [o+v]: 연구(研究)를 하다, 설명(說明)을 하다
- (8) 조선간찰 한문 [v+o]: 爲歎 '탄식하다', 爲可 '~하면 된다'; 爲多 '많다', 爲佳 '~해주면 좋겠다'

우리는 (8)의 '爲歎, 爲多'등이 중국어의 술목 구조와 한국어식의 조어법에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안으로 조선 지식인들에 의해 채택된 표현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다. (8)의 표현이 사용된 예를 들어보면 다음 (9-13)과 같은데, 이들 '爲'는 마치 한국어 동사·형용사의 어미 '-하다, -다'이거나 또는 한자어의 쌍음절화를 위해 '덤'으로 끼워넣은 어소처럼 보인다.

- (9) 但開坐未易爲期, 極可憂歎。(農巖眞蹟) 다만 개좌(開坐)를 기약하기가 쉽지 않으니 대단히 걱정되고 한탄스럽네.
- (10) 卽奉↑手字, 審↑履用如宜, 欣慰爲多。¹⁾ (農巖眞蹟) 오늘 자네 편지를 받아 생활이 순조로움을 알고나니 많이 기쁘고 반갑네/기쁨·반가움이 많은네.
- (11) 病憂冗甚, 未奉一字仰候爲歎。(農巖集.書) 질병으로 마음이 어수선하여 안부 편지를 한 자도 보내지 못하였으니 한탄스럽네/못 하였음을 탄식하네.
- (12) 至於代艸之謗, 誠不足多辨。然須↑加意慎愆爲佳。(農巖眞蹟) 대신 초고를 쓴 데 대한 비방을 두고는 정말 여러 말로 변명할 것이 없네. 그러나 모름지기 더욱 유의하여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좋겠네/처신하기를 바라네.
- (13) 今日見星州尙州等人賚書, 聞碩妻墮胎, 深恨”(深恨)! 年來無好事, 只以碩妻之姪爲喜。而今又如此奈何””(奈何)! 千歲, 因豊山叔母主忌諱, 至今未調, 今日當送。余亦明”(明)日成服後, 向豊山留數日, 還來向青松爲意。舍孫初十日後送來爲可。此間不須急”(急)致送。凡事就問許翰林爲可。(槿墨19.권전) 다만 질의 처가 회임한 것이 기쁘네/회임한 것을 기뻐하네.돌이와 청송으로 갈 생각이네. 내 손자는 초열흘 지나서 보내주면 되겠네.모든 일은 허한림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겠네.

1) ↑ 등의 부호: 한문 서간에서는 상대방이나 고귀한 이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를 지칭하는 글자를 새 행의 머리로 올리거나[擡頭], 그 글자 앞에 공란을 두거나[隔字]하는데, 이 존경표시는 주어나 목적어의 생략이 심한 서간의 문장에서 문맥의 정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는 간찰의 문장 속에 '↑: 擡頭'와 '○: 隔字'로 존경의 부호를 표시한다.

[‘…爲喜’는 보조술어가 아니다. 그런데 보조술어 ‘…爲意’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다. 일반적 형용사성 술어와 보조술어의 성격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이다.]

예문에서 보듯이 이들 ‘爲+동/형’은 늘 문장 끝에 와서 한국어 문장의 술어 위치와 일치하는데, 이것은 조선 간찰한문의 특색일 가능성이 높다. 일종의 이중언어 생활을 한 조선 지식인은 문서작성의 긴장감이 이완된 상태에서 빠르게(서둘러) 이들 간찰을 썼으며, 오랜 세월이 걸쳐 서면어로만 사용되어온 한문(중국어)에는 입말인 한국어의 문법이 삼투되어 들어갔을 것이다.

II. ‘爲+동/형’의 기능: 중심술어와 보조술어

한국어로 사고하는 한문간찰 필자들은 중국어의 규칙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한국어식의 표현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였을 터인데, 이들 (9-13)의 예문에서 우리는 조선 지식인이 술어를 문장 끝에 두는 문법적 책략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그것은 형용사 술어문과 목적어 전치의 두 방법이며, 이 두 구문 중 하나를 택하거나 둘 다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동사 ‘爲’는 ‘하다, 되다, 이다’의 용법을 가져 여러 구조관계의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爲+형용사/조동사〉인 ‘爲多, 爲佳, 爲喜, 爲可’들은 ‘~하다+형용사/조동사’ 즉 ‘많다, 좋다, 기쁘다, 가능(됨직)-하다’로 재해석되어 한국어와 대응하며 형용사 술어문을 구성한다. 〈爲+동사〉인 ‘爲歎, 爲意’는 ‘~하다+동사’ 즉 ‘탄식-하다, 생각-하다’로 해석되어 목적어[대상]를 전치한 동사 술어문을 구성하며, 이 경우 한국인 필자와 독자는 ‘연구(研究)하다, 연구(研究)를 하다; 식사(食事)하다, 식사(食事)를 하다; 나무하다, 나무를 하다’를 함께 사용하는 한국어 어감에 따라 ‘爲歎, 爲意’를 ‘~하다+명사’의 관계로 해석해도 된다. 그리고 〈爲+형용사〉에 속하는 ‘爲多’는 ‘많다고 (생각/말)하다, 자랑하다’로, ‘爲喜’는 ‘기뻐하다’로도 사용되어 또 다른 형태의 동사 술어문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는 고대한어 동사·형용사·명사의 품사활용 현상과 관련된다.

이와 같은 문미(구절구조의 맨끝)의 '爲+동/형' 술어는 다시 그 역할에 따라 중심술어와 보조술어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8-11)의 '爲期: 기약하다', '爲多: 많다'와 '爲歎: 한탄스럽다, 탄식한다', 그리고 (13)의 '爲喜: 기쁘다, 기뻐한다'는 해당 구절의 중심술어이다. 그리고 (12, 13)의 '爲佳: 좋다, ~기 바란다', '爲意: ~할 생각이다, ~려 한다', '爲可: ~면 된다, ~기 바란다'는 일종의 보조술어로 볼 수 있다. 중심술어인 '爲+동/형'들은 그 앞에 언급된 사태에 대한 화자의 인지 및 처리의 내용을 표시할 뿐인데, 보조술어들은 모두 대화 상대방에 대한 희망·당부나 자신의 의향을 표시하고 있어, 한국어의 보조술어(보조용언) 및 중국어·영어의 조동사(능원동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중국어의 '주-동-목적어' 구조를 '주-목적어-동' 구조로 바꾸는 것은, 주제화에 의한 목적어 전치와 함께 문미를 술어로 마감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상의 문미술어 중 동사인 '爲+동' 즉, 爲 뒤에 동사 및 조동사가 오는 구문들은 모두 목적어[대상] 전치의 구조로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예문 (1)의 '望/爲望'은 그 앞에 놓인 동사 '投'의 구를, (9)의 '期/爲期'는 '開坐'를 의미상의 목적어로 가진다. 특히 보조술어 구문은 중국어의 주요 양태 표현인 <능원동사+중심술어>의 어순을 뒤바꿔 <중심술어+보조술어(양태)>의 형태인데, 그 의미적 관계는 각각 <술+목적어>과 <목적어+술>이다. 즉, 보조술어 구문도 목적어 전치의 한 유형이다.

이와 같은 '爲+동' 술어의 목적어 전치 방식은 '以a爲b'의 구문과도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진시기 중국어에서부터 이미 사용되어온 '以'에 의한 목적어전치는 조선한문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었다. 다음 예문 (14)는 '以~爲'와 '以~之+명'이 마치 목적어의 앞뒤 경계표시인 것처럼 보이는 예이다.

- (14) 朝論色目等語，亦非前席之所可舉論。只以國事罔極，天變孔慘，必召致宋某，然後可濟危急之意陳達。而仍以宋某在野，而臣等猥據鼎席，此亦召災之一端爲言。則亦應因災策免之義，未知如何？戶布之議，既有詢問處之之命，因此力請還寢似當。(農巖集.書.上親庭) 조정의 분분한 의견과 당과의 갈등에 관한 일 따위는 임금 앞에서 거론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랏일이 끝없이 악화되고 하늘의 재변이 매우 참담한 이 위급한 상황은 반드시 송모(宋某)를 불러와야 구제할 수 있다는 뜻을 아뢰고, 아울러 송모는 초야에 있는데 아버님 등이 외람되어 삼정승의 자리를 차

지하고 있으니 이 또한 재앙을 불러들인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말씀 드린다면, 이는 재앙의 발생으로 인하여 임금이 삼정승에게 책서(策書)를 내려 면직시키는 의리에 합당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포에 관한 논의는 이미 널리 물어 처리하겠다는 명령이 있었으니, 이 기회에 도로 덮어 두는 것이 좋겠다고 극력 청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우리는 중심술어 및 보조술어가 되는 ‘爲+동/형’의 출현상황을 조선한문 간찰과 중국 언어자료에서 조사하면서, 개별 예문의 구조와 의미를 해석하고 그 빈도와 분포의 차이를 비교하며 ‘爲+동/형’의 보조술어를 조선한문 문법의 특징을 설명하는 한 범주로 설정할 만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먼저 ‘爲+동/형’류 동사들을 보조술어로 쓰이는 것과 중심술어로만 쓰인 것을 구분하여 사용상황과 예문을 분류 제시하고 간략한 해석을 시도한다.

용례조사 대상의 언어자료로는 조선 중후기 중요 문화인물인 농암 김창협(農巖 金昌協)과 장동김씨(壯洞金氏) 및 송시열(宋時烈) 등의 편지를 모은 《農巖眞蹟》《感誼錄》《法泉古簡》과 《農巖集·書》를 17세기 전후 조선간찰로 정하고, 중국 언어자료로는 조선 지식인에게 매우 큰 영향을 준 주희(朱熹)와 구양수(歐陽脩)·소식(蘇軾)·황정건(黃庭堅)·원굉도(袁宏道)의 언어를 대표하는 자료로서 《朱子語類》《歐蘇黃袁簡札(重光大簡墨)》을, 그리고 거란과 여진의 ‘漢兒言語’를 포함한 송대 역사자료 《三朝北盟會編》를 우선 정하였다.

1. 보조술어로 쓰이는 ‘爲+동/형’류 동사의 사용례

1) 爲望

보조술어: 희망, 요청. ‘~해주시 바라네’

○答檜浦第四書, 還投此便爲望。(農巖眞蹟)

藥白欲速得之。杵亦并造得爲望。但未知彼有所宜木否也。(農巖眞蹟)

新曆適有所得, 謹此呈送, ↑領情爲望。(感誼錄32.2)

哀次昨因所答孫兒書, 槩知近況矣。欲見朱書記疑, 復此送人, 覓付爲望。且自彼來者, 卽一一錄在壁上矣。室空時失去, 彼中簿錄示爲望。(法泉#1.1)

欲見朱書記疑，復此送人，覓付爲望。(法泉古簡)

2) 爲計

보조술어: 의지, 계획. '~할 셈이다, ~려 한다'

承○示遣呼木手，來卽往役爲計。(農巖眞蹟)

柳家亦試問於敬明爲計。(農巖眞蹟)

聞洛中痘火熾盛，以再明間發送一力，呈故於吏曹爲計。(感誼錄)

但聞昨日則痛時頗早，似是向差之兆，不勝默禱之至。更觀症勢專人書報爲計。生亦當觀勢，更爲進候矣。(法泉古簡)

鄉飲儀節不知去處。方令學子輩檢尋，俟鈔出附便爲計。(農巖集.書)

중심술어 '계획하다'의 예:

而方來之憂又更未艾，不知所以爲計也。(農巖眞蹟)

館洞太遠，近處絕無空家，栖遑狼狽，莫知所以爲計，愁人〃(愁人)!(農巖眞蹟)

如今要說一事，要去一人，千委百曲，多方爲計而後敢說，說且不盡，是甚模樣!(朱子語類)

참조예: 兒子自四月晦往栖忠鄉先山墳庵，爲避癘讀書計，涼生當還。(法泉古簡)

3) 爲期

보조술어: 의지, 기약. '기대하다, 기약하다'

公等議破虜爲期，今乃不用命乎?(三朝北盟.239-03)

公見統制盛新，撫其背曰：“昨與爾議破虜爲期，今乃不用命乎?”(三朝北盟.241-05)

遣使出疆，恐尋盟而未遂，露章狎至，復辟爲期。(三朝北盟.128-06)

중심술어. '기약하다, 기일을 잡다'

判金吾，昨見其書，以必遞爲期云。(農巖眞蹟)

但開坐未易爲期，極可憂歎。(農巖眞蹟) 다만 개좌(開坐)의 기약이 쉽지 않으니 대단히 걱정되고 한탄스럽네.

竊聞警報初至，宜撫韓開府奮袂怒髮，激勵士卒，以殄醜虜爲期，統率全軍絕江駐筭淮甸。(三朝北盟.161-11)

擊虜以殄滅爲期，方折衝於萬里，得道者多助之至，況有臣惟一心。(三朝北盟.202-08)

孽胡亡在旦夕，當以殄滅爲期。咨爾六師，咸聽朕意。(三朝北盟.237-01)

金曾許以四月十日爲期，公再三陳論，自辰至申，促至二月十日。(三朝北盟.215-10)

4) 爲幸

보조술어: 희망, 요청. ‘~해주기 바라네, ~해주면 좋겠네’

權生許書，傳致爲幸。(農巖眞蹟)

士論不知指何事。豈是申生是非之論否？因來○示破爲幸。(農巖眞蹟)

未知盛見復以爲如何。更賜詳諭爲幸。(農巖集.書)

不肯下心，好立己見，不盡人意。此意思，殊於道理有礙，未知明者見之，以爲如何？因來諭及爲幸。(農巖集.書)

俟細看，或有少疑，當以書更稟也。中和說亦試留意爲幸。(農巖集.書)

중심술어. ‘다행하다 여기다’

仍念兄主遄離劇地，未必不以爲幸。而庇仁、石城皆當遞，公私俱可歎！(農巖眞蹟) 이어 생각건대, 형님께서 속히 번거로운 곳을 떠나셨으니 다행이라고 아니 할 수 없지만 비인(庇仁)과 석성(石城)을 다스리던 사람도 다 마땅히 체직될 것이니 공적으로 사적으로 한탄스럽네.

生職名不勞自解，方以爲幸。今得德哉所報。恐又有狼狽之端，可悶。(農巖集.書)

5) 爲妙

보조술어: 희망, 요청. ‘~해주면 좋겠네’

鄙稿謄本，附致此便爲妙。(農巖眞蹟)

欲試用若干貼。此間所有材料，無論本方所入與否，十許種送去。隨其多少，劑來爲妙。(農巖眞蹟)

今便有忙事，只到吳堦家徑還。如○欲回報，尋便寄書爲妙。(農巖眞蹟)

適有小奴入城，試更寫去，或未發送，以此傳之爲妙。(農巖眞蹟)

原書送之，一番○參見後，謄留一本而還之爲妙。(農巖眞蹟)

第當以草本送去，自○彼淨寫爲妙。(農巖眞蹟)

昨書，聞授諸吾家婢子而來云。如未及傳，○討見爲妙。(農巖眞蹟)

先傳鄙書後，卽呈單爲妙。(感宜錄#25)

在我有所執，則雖是疎遠之間，發言之際，少無疑難之端，受出呈文題辭，觀其意俯仰，畢陳所懷，爲妙爲妙！(感宜錄#28)

6) 爲佳

보조술어: 희망, 요청. '~해주면 좋겠네'

此去書，傳于李生璋爲佳。(農巖眞蹟)

未知其鞠葬當在何間，欲作文字致酹，並↑探示爲佳。(農巖眞蹟)

伯溫婚事如↑示誠好，須與崔君商量爲佳。(農巖眞蹟)

至於代艸之謗，誠不足多辨。然須↑加意慎愆爲佳。(農巖眞蹟)

今送人馬，宋史付送爲佳。(農巖眞蹟)

申君答書見之，想其難於輕借，欲先得目錄，就揀其緊要者，續續求見，未知此無甚難否。更因書及之爲佳。(農巖眞蹟)

幸與舜瑞、伯溫、載大，相對勸嚴，如有可論，還以見教爲佳。(農巖眞蹟)

所論得之。但此章文義，諸先生說不甚明，更詳考之爲佳。(朱子語類卷第三十三)

千萬更加勉力，就日用實事上提撕，勿令昏縱爲佳！(朱子語類卷第一百一十八)

중심술어: '좋다, 좋게 여기다'

叔蒙問：「『父母唯其疾之憂』，注二說，前一說未安。」曰：「它是問孝。如此，可以爲孝矣。」「[賀孫。以下武伯問孝。]」「父母唯其疾之憂」，前說爲佳。後說只說得一截，蓋只管得不義，不曾照管得疾了。[明作。](朱子語類卷第二十三)

但初六『來譽』，則位居最下，無可來之地，其說不得通矣。故不若程傳好，只是不往爲佳耳。[不往者，守而不進。](朱子語類卷七十二)

問樂。曰：「古聲只是和，後來多以悲恨爲佳。溫公與范蜀公，胡安定與阮逸李

照爭辨，其實都自理會不得，卻不會去看通典。(朱子語類卷第九十二)

伯恭文鑑，有正編其文理之佳者；有其文且如此，而衆人以爲佳者。(朱子語類卷第一百二十二)

頃時劉丞相莘老死於貶所。後來得昭雪復官，其子斯立有啓謝時宰一聯云：『晚歲離騷，徑招魂於異域；平生精爽，或見夢於故人！』世傳以爲佳。」(朱子語類卷第一百三十八)

7) 爲好

보조술어: 권유, 희망. ‘~하면 좋겠네’

承已○得家移寓。雖不○盡室出來，只如前所約，携兒輩來棲爲好，想不待更告也。(農巖眞蹟)

중심술어. ‘좋다’

不如程子整齊嚴肅之說爲好。蓋人能如此，其心卽在此，便惺惺。(朱子語類卷第十七)

若主祭之說，某不敢信。且雷雨在天，如何解迷？仍是舜在主祭，而乃有風雷之變，豈得爲好！(朱子語類卷第七十八)

左右疑其爲好也，明日易以他物，而置此品於遠，則不食矣，往往於食未嘗知味也。(朱子語類卷第一百三十)

今人都不曾識：好處也不識，不好處也不識；不好處以爲好者有之矣，好者亦未必以爲好也。(朱子語類卷第一百一十六)

8) 爲宜

보조술어: 권고. ‘~이 합당하다, ~야 한다’

稱謂終未得穩便者，則無乃不爲獻官爲宜耶？(農巖眞蹟)

幸○善將攝，無致添加爲宜。(農巖眞蹟)

9) 爲可

보조술어: 권유. '~해주면 되겠네'

葬日卽開月初二, 其間一番助役爲可。(農巖眞蹟)

중심술어. 가능성을 표현하는 말이 되어, 한국어로는 '가능'의 조동사 구문이며, 중국어문법의 관점에서는 일종의 연결동사 구문을 만든다.

罪人再昨出來乍到, 不免懣痛, 而居處靜寂, 應接稀簡, 且得○令兒相守爲可幸爾。(農巖眞蹟) '~해주면 정말 좋겠네/기쁘겠네.'

聞↑滯證復作旋止, 根柢未除, 爲可慮也。(農巖眞蹟) '~함이 걱정이네.'

今日未暮, 來到此處, 病餘氣力尙不甚漸頓, 房室亦頗溫煖, 庶便調息. 但展墓差遠, 爲可悶爾。(農巖眞蹟) '~함이 참 답답하네/걱정이네.'

兼有他文字校勘之役, 不能專意於緊要工夫爲可悶爾。(農巖眞蹟)

立八尺之表, 以候尺有五寸之景, 寸當千里, 則尺有五寸恰當三萬里之半. 日去表有遠近, 故景之長短爲可驗也. 해와 표 사이의 거리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림자의 장단이 그것을 반영한 것이다.

但天之行疾如日, 天一日一周, 更攙過一度, 日一日一周, 恰無贏縮, 以月受日光爲可見. 달이 해의 빛을 받는 것으로 알 수 있다.

2. 중심술어로 쓰이는 '爲+동/형'류 동사의 사용례

1) '爲+복음절동사'의 중심술어 예

奉慮殊深, 只以相見有期爲欣企爾。(農巖眞蹟)

비교: 논어맹자의 '以~爲~'구조

如有寫手, 幸爲○膽取以送如何?(農巖眞蹟)

於先儒之說, 又未眞知其然, 而強爲援證者有之。(農巖眞蹟)

而此外凡百無人照管, 此則專委於○道以, 須一一預爲○留神, 毋致遺漏如何? (農巖眞蹟)

今此問者之說, 固爲拘滯, 而所答雖近, 亦費分疏。(農巖眞蹟)

2) 爲歎 ‘탄식한다, 탄식스럽다’

頃得十二書後，旋有歸便，而適被酒不能作復爲歎。(農巖集·書)

再昨所遣伴，乃外處迷奴也。且遣書時，誤聞↑兄主就理，令往尋覓依幕於金吾門外，傳之矣。緣此不免空還。書中雖無緊要說話，想↑左右必深訝鬱，是以爲歎。(農巖眞蹟)

辱字慰荷。但聞↑宅舍尚未定爲歎。(農巖眞蹟)

참고: ‘以+동사구+爲恨’

△僕家兒息親事，必欲托於↑↑老先生子孫，實是平日宿願，而得與○令愛議定，私心喜幸。唯以未克速成爲恨。(法泉古簡)

3) 爲罪 ‘미워하다, 죄주다, 죄삼다’

其何敢焉。幸乞俯諒此意。早晚璧還。勿以爲罪如何。(農巖集·書)

此事想亦高明所樂聞。必不以爲罪也。(農巖集·書)

兄猶有相愛之意，則固宜一覽毀棄，使毋得罪於當世。而若以其不守愚分，妄觸時諱爲罪，則輒用高若訥故事亦無不可。惟高明裁之。(농암집#17-23 與俞寧叔)

4) 爲荷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沈菜蒙○繼送爲荷。但方服藥，若是蘿蔔則喫不得矣。(農巖眞蹟)

↑寄惠酒瓶柳器，依領爲荷。而年飢撫字之餘，何能○念及於此?(법천고간)

5) 爲重 ‘~을 중시하다’

所引南軒說，便是朱子仁說中知覺是智之用一般意思。朱子說足矣，何待南軒爲重?(農巖眞蹟) 주자의 설명이면 죽하지 남헌을 중시할 이유가 뭔가?

6) 爲多 ‘~이 많다’ (農巖眞蹟 2 感宜錄 1)

書至，審↑安勝，慰濯爲多。(農巖眞蹟) ‘위로되어 씻어짐이 많다.’

奴歸，見↑覆書，慰沃爲多。(農巖眞蹟) ‘위로되어 적셔짐이 많다.’

卽奉↑手字，審↑履用如宜，欣慰爲多。(農巖眞蹟)

一小科慶，於↑執事不足爲多。(感宜錄)

7) 爲苦 '괴롭다, 고생한다'

前聞↑瘡患爲苦, 今已快祛否? (農巖眞蹟)

彼家或以等候爲苦, 徑定於他, 則亦可慮。(農巖眞蹟)

傅景仁初解漳州, 以支散衣絹不好, 爲軍人喊噪, 不得已以錢貼支, 始得無事, 歲以爲苦。此事最不難理會, 而無一人肯言之者, 不知何故。(朱子語類卷第一百六)

昨者某以耳病爲苦, 自楊州求穎, 至此經時, 闕於奉狀。(歐蘇黃袁간찰)

爲慰 '반갑다, 위로되다'

兩見不如一款, 悵恨未已, 承↑書爲慰。(農巖眞蹟)

卽奉↑手札, 審夜間↑學履佳勝爲慰。(農巖眞蹟)

朝纔遣書, 此承↑委帖, 爲慰。(農巖眞蹟)

極以爲慰。(農巖眞蹟)

此爲慰幸。(農巖眞蹟)

이상과 같이 수집된 '爲+동/형'류 술어의 출현 빈도와 의미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표에서 언어자료를 조선 선비인 농암 김창협 등의 것(어료 1, 2)과 소식·주희 등의 중국 어료(어료 3, 4, 5)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조선 간찰의 문장에 쓰인 '爲+동/형'의 사용 빈도가 중국 어료에 비해 훨씬 높으며, 그것이 보조술어로 사용된 빈도는 더욱 큰 차이(약84배²⁾)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제한된 언어자료 조사 결과인 이상의 표에 의해 잠정적 해석을 하자면, '爲+동/형'을 보조술어나 중심술어로 사용하는 용법이 중국 漢語에 이미 있었고, 조선 한어에서는 그 적용 어휘의 범위를 넓히고 사용 빈도를 높였음을 알 수 있다.

2) 보조술어 빈도차 84배: 조선어료 ①②의 17.3만 자 중 보조술어 51회의 비율은 2.9423/1만, 중국어료 ③④⑤의 287.2만 자 중 보조술어 10회의 비율은 0.0348/1만으로 84배의 차이를 보임.

〈爲+동/형류 동사의 보조술어 및 중심술어 사용 상황표〉

형태\의미		어료		①	②	③	④	⑤
				農眞感法 ⁽¹⁾	農巖集書札	歐蘇黃袁	朱子語類	三朝北盟會編
				33,330字	140,000字	7,540字	1,564,000字	1,300,000字
술+爲望	희망 요청	6/6 ⁽²⁾	1/1					1/1
술+爲計	의지 계획	4/6	1/1			0/1		0/22
술+爲期	의지, 기약	0/2	0/1					3/10
술+爲幸	희망 요청	2/3	3/4	0/1				2/3
술+爲妙	희망 요청	10/10	4/5			0/1		
술+爲佳	희망 요청	7/7	10/10			3/8		1/1
술+爲好	권유 희망	1/1		0/1				0/8
술+爲宜	권고 응당	2/2						0/3
술+爲可	권고 허가	1/5	0/19			0/49		0/52
보조술어	출현회수	33/42	18/41	0/2	3/59	7/100		
	비율㉓ ⁽³⁾	9.9009	1.2857	0	0.0002	0.0005		
주+爲歎	탄식하다	2	8	1	1			
주+爲罪	미워하다		4		3			
주+爲荷	고마와하다	2						
주+爲重	중시하다	1	5		28			
주+爲多	많다(하다)	4	11		21		14	
주+爲苦	괴롭다	2		1	2		1	
중심술어	출현회수	11	28	2	55		15	
술어	출현회수	53	69	4	114		116	
	비율㉔ ⁽⁴⁾	15.9015	4.9286	5.3050	0.7161		0.8923	

凡例: 1. 어료 ‘農眞感法’은 《농암진적》 《감의록》 《법천고간》을, 《農巖集書札》은 농암 김창협 문집에 실린 서간을, 《歐蘇黃袁》은 《(초서로 쓴) 구양수. 소동파. 황산곡. 원굉도의 편지글》을 말함.

2. 보조술어의 출현 회수 표시 x/y : ‘x’는 보조술어로, ‘y’는 보조술어와 중심술어로 쓰인 총 회수를 표시함.

3. 비율㉓: $(vp+爲+v/a)$ (보조술어) 출현 회수 \div 어료 문자수 \times 10000

4. 비율㉔: $(爲+v/a)$ 총 출현 회수 \div 어료 문자수 \times 10000

Ⅲ. 결론

이상으로, 조선 지식인이 지은 한문 중 중국어 문법의 긴장과 제어가 비교적 덜 심한 간찰 문장들에서 비교적 특수한 성분인 보조술어 형태를 수집하여 분류하고, 그것을 조선 지식인의 한문간찰 작문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어료들과 비교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문장의 특성과 출현상황에 대한 초보적 검토결과를 우리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爲望 爲計 爲幸 爲妙 爲佳' 등이 '희망, 제안, 요청' 등의 양태 및 어기를 표시하는 보조술어의 용법은, 중국어에서는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 것이지만 조선한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통사적 수단으로서 범주화할 만한 것이다. 그리고 양태나 어기를 표현하는 보조술어 외에도 '爲歎, 爲荷, 爲罪, 爲重, 爲多'를 포함한 여러 〈爲+동사/형용사〉의 표현들 역시 조선한문에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이들 보조술어 형식은 또 한중 양 언어의 어순의 특징과 관련지어 설명될 수 있다. 한국어는 보조용언, 종결조사(어기조사) 등으로 화자의 사태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중요 정보를 문장 말미에 둔다. 중국어 역시 어기조사와 보어를 문미에 두어 어기 등의 화자의 태도를 표현한다.

셋째, 〈중심술어+보조술어〉의 형식은 (〈능원동사+동사〉와 함께) 중국한문과 조선한문 모두에 사용되는데, 조선한문에서는 현격하게 높은 사용빈도를 보인다. 이것은 조선 한문(중국어)에 조선어의 문법이 삼투된 결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그것은 두 언어에 공통된 형용사 술어문 및 조동사 구문이 똑 같이 〈주술구+술어〉 형식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중국어와 한국어에는 형용사 술어문이 존재하며, 의미상으로 '가능성, 의욕'등을 표현하는 조동사는 형용사와 유사한 문법 특징을 지닌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양태·성상 구문 어순 비교〉

- (1) 나는 네가 좋다. 我喜歡你.
- (2) 그도 (데려) 왔으면 좋겠다. 讓他過來就好了.
- (3) 그러면 라면을 먹으면 된다. 那就吃方便面好了.

조선한문의 보조술어가 이처럼 형용사 술어문과 문미 어기조사 등 양 언어의 유형적 특성과 관계련이 있다면, 그 관찰 범위를 양태·어기에만 한정하지 말고 인지 내용을 진술·감탄하는 형용사 술어를 포괄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선한문이 한국어의 형용사 술어문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한국어 ‘하다’류 동·형용사의 조어 방법과 한자어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한다.

【參考文獻】

- 김창협 등, 《感宜錄》 1권, 충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 2012 (尙州의 안동김씨 四聲堂 金生員이 받은 간찰 모음).
- 김종진 임재완 역, 《초서로 쓴 구양수. 소동파. 황산곡. 원굉도의 편지글》[歐蘇黃袁 簡札], 서울: 다운샘, 2007(《重光大簡墨》 李柱洸 篇, 1915의 번역본).
- 하영희 역, 吳世昌 編, 《槿墨》(5책),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고려말 정몽주 이래 600년간 名賢 1136명의 친필 시와 서간을 수록].
- 장유승, 배미정, 《김창협의 農巖眞蹟》(한국簡札자료선집 1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 안동교 외 탈초 역주, 《農巖眞蹟》, 한국초서연구회, 서울: 민속원, 2015.
- 김창협 저, 송기채 역, 《農巖集》, 민족문화추진회, 2002.
- 宋時烈 등 저, 《(法泉)古簡.乾》, 충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 2012 [法泉(현 대전시 법동 지역)의 宋炳夏(東春堂 宋浚吉의 손자) 등이 받은 편지 모음].
- 徐夢莘 撰, 許涵度 교감, 《三朝北盟會編》, 上海古籍出版社, 上海, 1987 [1904년 木板本の 影印].
- 《朱子語類》.
- 白斗鏞 편, 《海東歷代名家筆譜》 6卷6冊 (木板本), 京城: 翰南書林, 1926.
- 하영희, 전송열, 이대형, 임재완, 제송희 저, 《옛편지 낱말사전》, 돌베개, 2011.
- René Appel & Pieter Muysken 저, 김남국 역, 2009, 《언어접촉과 2개 언어 상용》, 서울: 동인출판사.
- 김운조, 〈書牘類의 특징과 조선 후기의 양상〉; 《동방한문학》 31집, 2006.
- 김종철, 〈한문 문체연구의 회고와 전망〉, 《동방한문학》 31집, 2006.
- 김효경, 〈간찰의 산문 문체적 특징〉, 大東漢文學 28집, 2008.
- 배미정, 〈歐陽脩와 蘇軾의 尺牘 모음집 歐蘇手簡〉, 《문헌과 해석》 24호, 2003.
- 배미정, 〈農巖 金昌協의 『農巖眞蹟』과 『農巖集』〉, 《서지학보》 34호, 2009.

심경호, 〈문자와 매체: 조선선비의 문자생활과 지적 교류〉, 《국학연구》 14집, 2009.

【中文提要】

韓語最突出的類型學特點是‘o-v’詞序，即賓語放在謂語前面而謂語放在句末。這樣，漢語用‘助動詞(Modal)-中心謂語(v)-賓語(o)’的詞序，韓語反而用‘賓語(o)-中心謂語(v)-助動詞(Modal)’。朝鮮文人寫書信的時候，漢語語法的緊張總是比詩歌·散文輕鬆，韓語的語法自然而然地滲入到書信的漢文。朝鮮文人要選擇韓漢兩種語法的接交點，其中一個比較好用的手段是句末放一個‘爲+謂詞’的詞(組)，來做成形容詞謂語句或者提前賓語的動詞謂語句。這樣的手法也有可能跟韓語謂詞中‘詞根+하다[爲·做, do]’結構的漢語系詞彙有着密切的關係。

【主題語】

한문간찰, 조선한문, 보조술어, 종결조사, 樣態, 언어접촉

漢文書信, 朝鮮漢文, 輔助謂語, 語氣助詞, 樣態, 語言接觸

Chinese letter, Chinese writing of Joseon, Modal, Sentence Ending, Aspect, Language contact

투고일: 2016. 1. 15 / 심사일: 2016. 1. 20~2. 5 / 게재확정일: 2016. 2. 15